

KAI, 리더십 공백 장기화… 재원확보·대형계약 등 한계 직면

정권 교체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 지난해 6월 이후 직무대행 체제 운영 수출협상·후속지원 등 의사결정 차질 “민영화를 포함한 개선방안 논의해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대표이사 공백 상태에서 폴란드 FA-50PL 납기지연과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감액에 따른 재원 공백이라는 해외 사업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대형 수출 계약 이행과 공동개발 재원 보전 등 굵직한 의사결정이 집중되는 시점에 경영 컨트롤타워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방산 매체 밀맥(MILMAG)은 최근 폴란드 국방조달청과 KAI가 FA-50PL 36대 인도 일정을 재조정해 첫 인도는 오는 2027



KF-21

년 중반, 최종 인도는 2029년 초로 늦춰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계획 대비 약 1~2년 순연된 것이다. MILMAG은 지정학적 상황과 공급망·생산 여건을 배경으로 언급하며 시제기 첫 시험비행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AESA 레이더 등 첨단 항전

장비 통합·시험 지역이 일정 순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일정 재조정으로 대형 수출 계약 이행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KF-21 공동개발을 둘러싼 재원 리스크도 겹친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개발비 분담금 약 1조 6000억 원을 부담

하고 완제기 48대 도입을 추진하는 공동 개발 패키지에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축소하고 기술 이전 범위를 줄이는 데 한·인도네시아가 합의했다. 다만 분담금 감액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개발 재원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를 정부 지원, KAI 자체 부담, 사업

구조 조정 중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외 리스크를 조정해야 할 최고경영진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KA I는 강구영 전임 사장이 지난해 6월 조기 사퇴한 이후 7개월째 사장 공석 상태다. 회사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최근 노조는 사장 선임 촉구 시위를 벌이며 수출 결재 지역과 KF-21·FA-50 일정 차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올해 KAI는 KF-21 양산과 공군 인도, 육군과 계약한 소형무장헬기(L

AH) 출고, 필리핀의 KF-21 20대 도입 협의 등 국내 생산과 해외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여기에 필리핀 FA-50 성능개량·후속군수지원(PBL)까지 겹치며 양산·수출 협상·후속 지원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일정이 형성되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KA I는 오너십이 부재한 구조에서 정권 교체 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누적돼 왔다”며 “폴란드 FA-50PL 납품 일정 조정과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 등 대외 변수가 겹친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리스크 관리와 의사결정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사장 선임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방안, 민영화 가능성까지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효성重, 차세대 전력보상장치 만든다

獨 스켈레톤·日 마루베니 업무협약 ‘e-STATCOM’ 공동 개발 등 협력

효성중공업이 인공지능(AI) 시대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전력 안정화 기술 선점에 나선다.

효성중공업은 독일 스켈레톤 테크놀로지스(Skeleton Technologies), 일본 마루베니(Marubeni)와 ‘e-STATCOM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효성중공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겸증된 자사의 스태콤(무효전력보상장치) 기술과 스켈레톤의 슈퍼커패시터(초고속 충·방전 장치) 솔루션을 결합해 2027년까지 차세대 전력보상장치인 ‘e-STATCOM’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스켈레톤의 전략적 파트너인 마루베니는 슈퍼커패시터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한다.

e-STATCOM은 기존 스태콤에 고성능 에너지저장장치인 슈퍼커패시터를 결합한 차세대 전력 안정화 솔루션으로, 전력의 공급과 품질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제어해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특징이다.



한영성 효성 상무(왼쪽부터), 요코타 타케시 효성중공업 부사장, Maximiliaan van de Poll 스켈레톤 전략 부사장, Dai Sakakura 마루베니 최고운영책임자(COO)가 ‘e-STATCOM’ 개발 협력 MOU 체결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효성중공업

최근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는 AI 산업 성장으로 심화되는 전력 수급 불균형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전력 안정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STATCOM은 급격한 부하 변동에도 전력 계통이 상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미래에

너지 시장의 필수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2027년 개발을 완료한 뒤 국내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2006년 국내 최초로 스태콤 개발에 성공한 이후 국내 시장을 선도해 왔다. 2015년에는 150MVar급 스태콤 상용화에 성공했고, 2018년에는 신영

주·신충주 변전소에 단일 설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였던 400Mvar급 스태콤을 설치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 주요 국가에도 스태콤을 공급하며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전 세계 전력 시장은 AI 시대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맞물려 ‘슈퍼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며 “효성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구축하고 선제적인 차세대 전력 솔루션 개발을 통해 전력망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LIG넥스원, 카타르 ‘DIMDEX’ 참가

신궁·현궁 등 종합 솔루션 제안

LIG넥스원은 카타르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DIMDEX 2026’에 참가해 중동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DIMDEX 2026’은 현지시간 19일부터 22일까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최되는 중동 지역 최대 해양 방산 전시회다. 2년마다 열리며 이번이 10회째다. 카타르를 비롯해 각국 정부·국방부·방산기업 등 200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 LIG넥스원은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 ‘천궁-II’ ▲장거

리·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대공유도무기 ‘L-SAM’ ▲휴대용 대공방어무기 ‘신궁’ 등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아우르는 다종방어 통합 솔루션 ‘K-대공망’을 선보인다. 현지 군의 방공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미국 해외비교시험(FCT)을 통과한 2.75 인치 유도로켓 ‘비궁’ ▲대화력전의 핵심 장비인 ‘대포병탐지레이더-II’ 등을 전시하며, 현지 군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유혜온 기자

HD현대重, 4800억 규모 선박건조 계약

올해 들어 약 15억 달러 수주

HD현대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와 15만7000DWT급 원유운반선 2척, 11만5000DWT급 PC선(제품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4816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3.32% 규모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9년 6월 30일까지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원유운반선·PC선 4척 수주를 포함해 올해 총 9척, 14억 9000만 달러(약 2조 2000억 원)의 선박을 수주했다. 이는 연간 수주 목표치인 233억 1000만 달러(약 34조 4500억 원)의 약 6.4% 수준이다. 선종별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 LPG·암모니아 운반선 1척, 원유운반선 2척, PC선 2척이다.

/유혜온 기자

LG전자, 의류관리 가전 라인업 확대

26일 ‘LG 시스템 아이어닝’ 출시

LG전자가 세탁과 건조는 물론 살균·탈취·스타일링에 이어 다림질까지 아우르는 의류 관리 가전 라인업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오는 26일 스팀 다리미와 핸디 스티머, 스타일링 보드(다림판)를 하나로 결합한 올인원 의류 관리 솔루션 ‘LG 시스템 아이어닝’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LG 시스템 아이어닝’은 옷감 손상에 대한 부담을 낮추면서도 누구나 손쉽게 다림질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강화

한 제품이다. 스팀 다리미와 핸디 스티머에서 분사되는 미세 고압 스팀으로 수분이 남지 않도록 섬유 속 주름을 빠르게 펴주며, 고온으로 유해 세균을 99.9%까지 살균한다. 특히 면, 울, 레이온 등 의류 소재에 따라 스팀 온도를 달리하는 7개 전용 코스를 제공해 옷감 손상을 최소화한다.

다림질 과정에서 옷이 다림판에 달라붙거나 다리미에 밀려 주름이 생기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액티브 스타일링 보드’ 기능을 적용했다. 스타일링 보드에 탑재된 팬이 바람을 불어 옷을 띠우거나



‘LG 시스템 아이어닝’ 신제품. /LG전자
공기를 흡입해 고정함으로써, 얇고 하늘거리는 소재도 안정적으로 다림질할 수 있다. 스타일링 보드 커버는 분리 세척이 가능하며, 보드를 세로로 접을 수 있어 보관도 용이하다. /차현정 기자 hyeon@

서울·부산 등 주요 지역 체험행사

르노코리아가 올해 아심작으로 공개한 ‘필랑트’를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지역에 체험 행사인 ‘메종 필랑트’(MAISON FILANTE)를 진행한다.

20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메종 필랑트는 우선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팝업 부스로 진행된다.

르노코리아의 플래그십 스토어인 르노 성수에서도 2월 2일까지 르노 필랑트를 전문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단 방문 일정에 따라 전시 차량 종류는 상이하다.

부산 강서구 스타필드 시티 명지에서는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르노 필랑트 팝업 부스가 운영된다. 이 기간 중 메종 필랑트를 방문한 고객에게는 특별한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르노코리아 “‘필랑트’ 직접 체험해보세요”